

제주 한국어의 반복 부사어 변이형 형성에서의 발화와 인지요소 연구*

강 석 한**

차 례

1. 서론
2. 제주지역어 반복 부사어의 특징
3. 모음 변이형
 - 3.1. 전설 모음화
 - 3.2. 모음 상향화
 - 3.3. 모음변화의 청각 인지적 측면
4. 자음 변이형
 - 4.1. 자음 교체
 - 4.2. 자질 교체
5. 결론

1. 서론

본고는 제주 지역어(Jeju Korean)¹⁾에 나타나는 반복 부사 변이형들의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KRF-2006-321-A00563). 본 논문 구성에 도움을 준 이석재, Steriade, Albright 및 Flemming 선생님과 익명의 심사위원 세분의 비평에 감사를 드린다. 물론 본 논문의 모든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부분적인 내용이 Cornell University와 SUNY-Binghamton에 열린 2008 ICKL 대회(6.26-6.28)에 발표되었다.

**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방송/음성 분석실. kang45@snu.ac.kr

형태와 음운론적 특징을 발화와 인지 측면에서 논의한 것이다. 즉, 중첩 변이어들이 지니는 반복이나 교체형은 음향 신호를 기반으로 하는 인지 차이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동인에 의하여 유발되고, 제주 지역어가 갖고 있는 고유의 발화상의 음운 법칙에 의하여 최종적인 변이형들이 완성된다고 본다.

반복 부사 변이형에 관한 논의가 음 변화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이 어휘들의 변이형 추적을 통하여 일정한 음 변화 현상의 규칙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이다. McCarthy & Prince (1993, 1995)의 하면, 형태론적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중첩어는 어기(base)와 중첩(reduplicant) 사이에 음운론적이고 음성학적인 요소가 개입하고, 이 요소들이 대상 언어의 음운현상을 잘 설명해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사어의 반복 형태를 연구하는 것은 제주지역어에 나타나는 음운 현상을 잘 보여 줄 수 있다.

제주지역어는 서울지역어에 나타나는 반복 부사어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사전을 통한 연구에서는 제주어인 경우 2251개의 반복 부사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서울 지역어의 532개 중첩어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이다. 이는 제주어의 사전 제작과정에서 반복 부사어가 일부 연령층 혹은 일부지역에서만 사용하는 음성적 변이형을 포함하여 채집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주어는 중첩어를 구성하는 부사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 반복 부사어들은 의성어, 의태어 등이 동일한 어근이나 어간의 반복을 통한 반복 복합 형식을 이용하여 의미 강화를 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반복 부사어들의 다양한 변이형들은 음변화의 중요한 음성학적/음운론적 단서를 제공해 준다. 다음은 한 반복 부사어의 변

1) 제주 한국어(Jeju Korean)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제주 지역에 사용하는 한국어를 의미한다. 언어학적으로 표준어에 대비되는 방언(Jeju dialect of Korean)으로서의 개념보다 독자적인 한국어의 한 갈래로서 대우한다는 의미이다. 이 개념에는 방언이 언어학적인 변이성 폭이 작게 나타나지만, 본고의 연구 대상인 제주 한국어는 그 폭이 광범위하다고 보는 연구자의 시각이 반영된다. 본고에 사용되는 제주 지역어, 제주어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형 예이다.

- (1) 돌각돌각, 돌각돌각, 돌각돌각, 돌각돌각, 돌크락돌크락, 돌그락돌그락,
 돌끄락돌끄락, 달각달각, 달끄락달끄락

이 9개의 공시적 변이형은 동일한 의미를 지닌 어휘에서 출발하지만 그 의미 강도는 약간씩 다르다. 사전에 의하면, ‘돌각돌각’이 가장 의미가 약한 어휘인 반면에, ‘달끄락달끄락’이 가장 의미가 강한 형태이다. 우리는 이 의미강화 과정에서 경음화(돌각돌각 >> 돌각돌각), 격음화(돌각돌각 >> 돌각돌각), 모음 병합(돌각돌각 >> 돌각돌각), 모음 상향화 및 전설화(돌각돌각 >> 달끄락달끄락), 부분 중첩 (돌각돌각 >> 돌그락돌그락, 돌각돌각 >> 돌크락돌크락)²⁾ 등의 복합적인 음운 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 부사어는 의미상의 강약에 의하여 변이형이 파생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제주어에서 발견되는 음운 현상들은 표준 한국어 틀내에서 각기 별개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다(강공택, 1986; 김광웅, 2001). 예를 들어, 강공택(1986)에서는, 반복부사 변이형을 조어, 형태, 음운측면에서 34가지의 형태 변화를 개별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변화는 각기 다른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제주어에서 개별적으로 보이는 음운 현상들은 ‘칭각 효과의 강화’라는 단일 목표점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즉, 여기 반복을 통한 형태론적인 의미 강화를 꾀한 반복 부사어는, 그 이상의 의미강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한 음절의 음가를 변형시킴으로서, 첫 번째 음절과 두 번째 음절사이의 음운론적인 비대칭을 통한 의미 강화를 꾀한다. 따라서, 조음적으로 각기 다른 경음화, 격음화, 두음 및 말음 첨가, 모음 전설화 및 상향화, 부분 중첩 등은 사실

2) ‘락’은 어기의 ‘ㄹ’ 복사형으로 부분 중첩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주어에 나타나는 ‘락(혹은 변이형 랑)’은 반드시 어기에 ‘ㄹ’이 존재한다. ‘ㄹ’ 복사형의 존재는 어말에서의 공명음을 통한 모라를 최대한 확장하려는 동인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차후 논문에 언급을 할 것이다.

상 '청각 강화 현상'이라는 단일 인지 현상을 만족시키기 위한 각기 다른 음운 법칙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청각 강화 현상은 세 가지 형태의 음성 신호 차이를 이용하고 있는데, 모음 부분에서는 'F1-F2 차이'의 극대화이며, 자음 부분에서는 '구간길이' 차이 극대화와 '피치(F0) 차이'의 극대화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어의 반복 부사어 변이형은 두 음절사이의 음향 신호 차이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고 본다.

Flemming (1996, 2005)은 두 개의 대조적인 음절 사이에 청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음변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 주장의 주요한 논점은 대조가 생기지 않으면 음 강화는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역으로 음 강화는 음향적인 대조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설-후설 사이의 대조가 존재하는 언어에서, 원순자질은 그 차이를 극대화하는데, 이는 많은 언어가 [i]와 [u]의 대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증명된다. 즉, F2 차이 극대화가 음대조의 강화를 유발하는 것이다. 이 예는 전설-후설 대조가 원순-비원순 대조에 의하여 차이점이 강화된다면, 대조의 극대화 중간에 중간단계의 대조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이론상 질서 정연하면서도 다양한 변이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전설 비원순 - 전설 원순 - 후설 원순 - 후설 비원순'의 모음 대조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지 청각 측면에서 F2 차이뿐만 아니라 F1 차이도 이용함으로써, '고모음-비고모음' 혹은 '저모음-비저모음' 사이의 대조를 유발한다. 실제적으로, 제주어의 반복 부사어 변이형들은 전설-후설과 저모음-고모음 사이에 F1 및 F2의 음향 신호 차이를 유효적절하게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제주지역어의 반복 부사어는 범언어적인 인지-청각 대조와 제주어가 지니는 고유의 발화 문법사이의 협상에 의하여 변이형들이 형성된다. 즉, 음성/음운론적인 청각인지와 발화요소가 변이형 형성의 동인을 이루고, 발화상의 문법이 여기에 적용됨으로서 최종적인 변이형이 완성된다. 따라서 반복 부사어 변이형 형성 과정은 전반적으로 범언어적인 청각 요소 - 대조 강화 - 가 관여하지만, 특정 문법화는 제주 한국어가 지니는 음운론

적인 요소인 모음 상향화 및 전설화, 그리고 두음 및 말음 첨가, 음절 첨가, 경음화, 격음화 등으로 실현된다.

2. 제주지역어 반복 부사어의 특징

다음 제시된 자료를 보면 제주 지역어의 반복 부사어가 서울 지역어에 비하여 변이형이 풍부함을 엿볼 수 있다.

(2) 서울 지역어

가득하다	가득가득	
발각거리다	발각발각	벌컹벌컹
깜박거리다	깜박깜박	깜빡깜빡 끔빡끔빡
달삭하다	달삭달삭	들씩들씩
찰삭거리다	찰삭찰삭	철씩철씩

(3) 제주 지역어

공글거리다	공글공글	공글락공글락	궁글궁글	궁글락궁글락
	공글랑공글			
브스락거리다	브스락브스락	브시락브시락	브실락브실락	브슬락브슬락
	바스락바스락	바시락바시락	바슬락바슬락	
중긱하다	중긱중긱	중긱중긱		
고들하다	고들고들	구들구들	꾸들꾸들	
조글거리다	조글조글	쫄글쫄글		
불착하다	불착불착	발착발착	벌착벌착	불착불착
	불치락불치락			

제주어는 서울어에 비하여 변이형이 더 풍부하게 나타난다. 사전³⁾을 통

한 연구에 의하면, 제주어에 나타나는 1741개의 중첩어중 74%가 변이형을 가지며, 서울지역어는 전체 532개중 43%만이 변이형을 갖는다. 이는 변이형 빈도수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제주어는 단일 반복 부사 변이형을 갖는 중첩어가 71%, 2회 변이형은 17%, 3회 변이형은 6%, 4회 이상이 3%인 반면에, 서울어는 단일 변이형이 80%, 2회 변이형은 18%이며, 나머지는 2%에 불과하다. 즉 제주 지역어는 서울 지역어에 비하여 변이형 회수가 더 많이 나타난다.

제주어는 반복 부사어가 의미강화를 위하여 변이형을 취하는 경우, 모음 변화(53%), 자음 변화(16%), 모음 및 자음 동시 변화(31%)를 보인다. 모음 변화는 모음 상향화와 전설화, 자음 변화에서는 두음 첨가, 말음 첨가, 그리고 자질 변화에서는 경음화, 격음화 등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제주어는 모음을 통한 변화가 자음 변화보다 선호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범언어적으로 모음 변화가 자음보다 청각적으로 더 큰 효과를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3. 모음 변이형

모음 강조 변이형은 전설모음화 모음 상향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전설모음화의 교체형에는 /i:/i/, /o:/o/, /a:/æ/, /u:/u/, 등이 있고, 모음 상향화 교체형에는 /a:/o/, /o:/u/, /a:/i/, /a:/e/ 등이 있다.

3.1. 전설 모음화

기단과 중첩의 한 음절(주로 첫째 음절)이 전설 모음화(vowel fronting)를 통하여, 변하지 않는 다른 음절(주로 두 번째 음절)과의 인지 대조를 통하여 의미 강화를 추구한다. (작은 의미: 큰 의미).

3) 제주어: 제주큰말 사전 (송상조, 2007)

서울어: 연세 한국어사전 (연세대학교, 2006)

(4) /ɨ:/ /i/	슬긱슬긱	실긱실긱
	슬깍슬깍	실깍실깍
	슬강슬강	실강실강
(5) /o:/ /ɨ/	곰작곰작	금작금작
	둥글둥글	등글등글
	공글랑공글랑	강글랑강글랑
(6) /a:/ /æ/	파글락파글락	패글락패글락
	방삭방삭	뱅삭뱅삭
	자글자글	재글재글
	항글랑항글랑	행글랑행글랑
(7) /u:/ /i/	무랑무랑	미랑미랑
	북작북작	빅작빅작
	불락불락	빌락빌락
	주춤주춤	주침주침

3.2. 모음 상향화

기단과 중첩의 한 음절이 모음 상향화(vowel raising)를 통하여, 변하지 않는 다른 음절과의 인지 대조를 통하여 의미 강화를 추구한다. (작은 의미: 큰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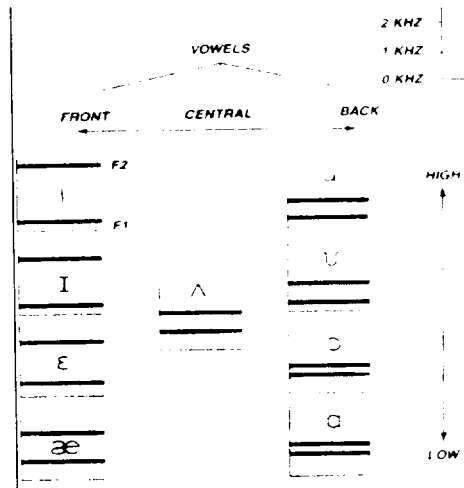
(8) /a:/ /o/	팍삭팍삭	폭삭폭삭
	바각바각	보각보각
	살락살락	솔락솔락

4) 의미상 작은 의미와 큰 의미는 사전(제주 큰말 사전)을 참조하여 판단하였다.

(9) /o:/ /u/	포근포근 볼딱볼딱 고실락고실락 보각보각	푸근푸근 불딱불딱 구실락구실락 부각부각
(10) /a:/ /i/	파지직파지직 비잘비잘 잔득잔득	피지직피지직 비질비질 진득진득
(11) /a:/ /ə/	꿀각꿀각 두상두상 듬상듬상 간들간들	꿀걱꿀걱 두성두성 듬성듬성 건들건들
(12) /a:/ /u/	발탕발탕 게작게작 자르탁자르탁	불탕불탕 게죽게죽 주르탁주르탁
(13) /ɔ:/ /i/	들씩들씩 든직든직 줄강줄강	들씩들씩 든직든직 질강질강

3.3. 모음변화의 청각 인지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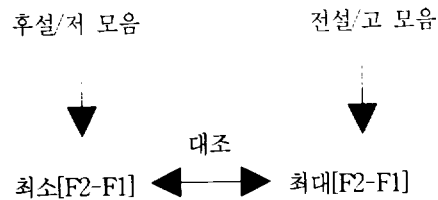
모음의 F1과 F2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모음 상향화와 전설화는 인지 차이를 극대화하는 음운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다. 이 각 모음의 F1과 F2 차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그림은 전설모음일수록, 그리고 고모음 일수록 F1과 F2 차이가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1> 각 모음의 F1과 F2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스펙트로그램 (강석한, 2007)

즉, 제주어 반복 부사어 변이형에서 전설모음화와 모음 상향화는, 인지 청각측면에서 [F2-F1] 극대화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F2-F1이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i] 모음을 중심으로 [e], [ɛ]등으로 기단의 한 음절이 변화하고, 다른 음절은 기존 자질을 고수함으로써, 변화된 한 음절과 변화에 저항하는 다른 음절사이의 인지 청각적인 대조를 꺾하고 있다. 이 현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4) 모음변화를 통한 음운 대조의 강화



4. 자음 변이형

자음을 통한 변이형은 한 음절에 두음 및 말음 첨가를 통하여 자음 자체가 교체하는 변이형과, 성문 자질의 교체를 통하여 경음화와 격음화를 유발시키는 자질 변이형으로 편의상 구분할 수 있다.

(15) 동울동울 동골동골 동콜동콜 동콜락동콜락

‘동울동울 >> 동골동골’로 진행되는 것은 ‘두자음 첨가’, ‘동골동골 >> 동콜동콜’로 교체되는 것은 ‘격음화’, 그리고 ‘동콜동콜 >> 동콜락동콜락’은 부분중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자음에 관련된 여러 형태의 음운 현상도 청각인지에 관련된 음 변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자음 교체형은 ‘음절구간’ 차이, 자질 교체형은 ‘피치(F0)’ 차이 극대화를 이용한다.

4.1. 자음 교체

4.1.1. 두음 첨가

한 음절 두음 자리에 자음을 첨가함으로써, 변화에 저항하는 다른 음절과 ‘음절 구간 차이’를 극대화하려는 인지상 전략이다. 두음 첨가를 통한 교체형에는 \emptyset : /k/, \emptyset : /h/, \emptyset : /p/ 등이 있다. (작은 의미: 큰 의미)

(16) \emptyset : /k/

동울동울	동골동골
오실오실	고실고실
방웃방웃	방긱방긱
은질은질	근질근질
을강을강	글강글강
울강을강	골강골강

외랑와랑 과랑과랑

(17) ø: /h/

우르릉우르릉	호르릉호르릉
어욱어욱	허욱허욱
우락우락	후락후락

(18) ø: /p/

와삭와삭	바삭바삭
자울락자울락	자불락자불락
와상와상	와상바상
와쌩와쌩	와쌩바쌩

4.1.2. 말음 첨가

한 음절 말음 자리에 자음을 첨가함으로써 두 번째 음절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말음 첨가를 통한 교체형에는 ø: /l/, ø: /m/, ø: /p/ 등이 있다. (작은 의미: 큰 의미)

(19) ø: /l/

휘끌휘끌	휠끌휠끌
휘딱휘딱	휠딱휠딱
터닥터닥	털닥털닥
타그락타그락	타글락타글락
소랑소랑	솔랑솔랑
자락자락	잘락잘락
머쓱머쓱	멀쓱멀쓱
조근조근	졸근졸근
어룩어룩	얼룩얼룩
뎡그랑뎡그랑	뎡글랑뎡글랑

(20) ø: /m/

ㄱ막ㄱ막	곰막곰막
조막조막	좀막좀막
고비고비	곰비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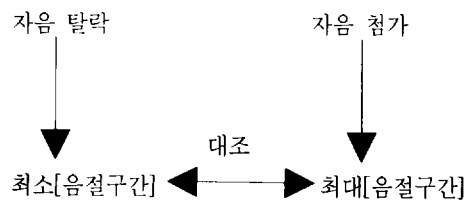
(21) ø: /p/

고박고박	곱박곱박
------	------

4.1.3. 음운 현상

두음이나 말음 첨가는 음 변화 길이를 강화하는 것이다. 사전 연구로 진행된 음성 실험 결과에 의하면 두음이나 말음이 첨가되었을 때는 첨가 이전보다 약 20%정도 음절 길이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한, 2007). 특기할 사실은 자음 교체형에서 어두에서는 폐쇄음이, 어말에서는 주로 공명음이 교체된다는 것이다. 이는 어두에서 폐쇄음이 지나는 VOT와 어말에서의 공명자음의 유성성이 인지상 흔들림을 유발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특히 어말에서 공명음 첨가는 모라(μ) 하나를 추가하는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동일 어기내의 음절들이 한 모라와 두 모라의 대조를 유발하고 있다. 즉, 자음 첨가 현상은 음절 구간 길이의 대조를 통한, 인지 청각의 충격을 강화하려는 현상이다.

(22) 자음 첨가를 통한 음운 대조의 강화



4.2. 자질 교체

4.2.1 성문 자질의 변화

모음변화나 자음 변화이외에도, 성문 자질의 변경을 통하여 경음과 격음 변이형을 형성한다. 제주어의 성문 자질의 구성 변화는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자질구성	반복 부사어 원형			반복 부사어 변이형		
	유/무	예	분포율	유/무	예	분포율
T - T	O	구박구박	67%	O	브글브글 > 부글부글	51%
T - T'	O	배쪽배쪽	7%	O	브작브작 > 브작브작	15%
T - T ^h	O	볼탁볼탁	5%	O	비들비들 > 비틀비틀	6%
T' - T	X ⁵⁾			O	조글조글 > 쪄글쪄글	4%
T ^h - T	O	타들타들	15%	O	빈직빈직 > 핀직핀직	18%
T' - T ^h	X			X		
T ^h - T'	O	포딱포딱	4%	O	크똥크똥 > 코짱코짱	5%
T' - T'	X			O	뽀족뽀족 > 뽀족뽀족	1%
T ^h - T ^h	X			X		
계			100%			100%

<표1> 제주 지역어 반복 부사어 어기내의 성문 자질 분포 (T: 평음, T': 경음, T^h: 격음)

성문 자질 변화를 통한 반복 부사 변이형 290개를 조사한 결과, 일반적으로 T-T 연쇄가 가장 흔하며, 첫음절에 유기음이 위치한 T^h-T 연쇄나

5) 극소수의 예외도 존재한다. 예외의 수가 총 세 개 어휘 미만인 경우는 분포율 산정에서 제거하였다.

두 번째 음절에 경음이 오는 T-T' 연쇄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는 모음 변화를 수반하는 모음 변이형 1020개, 자음 첨가 등을 통한 자음 변이형 362개 보다 적은 수가 자질 변이형을 갖는데, 이는 보편적으로 성문 자질의 변화 보다는 모음이나 자음 교체 변화를 통한 음변화가 우선됨을 알 수 있으며, 청각적인 효과면에서 자질변경은 이들보다 뒤 떨어짐으로서 변이형 수가 적다고 해석할 수 있다⁶⁾.

단순 반복 부사어에서는 첫 번째 음절과 두 번째 음절의 두음 연속이 T'-T, T'-T^h, T'-T', T^h-T^h 연속은 금지한다. 반면에 변이형인 경우 금지 연쇄는 줄어들어 T'-T^h, T^h-T^h 연속만을 금지할 뿐이다. 제주어의 반복 부사어 변이형은 동일 기단내에서 상당한 정도의 이질적인 요소가 동시에 구현될 수 있지만, 동시에 상대적으로 동일 자질을 지닌 T'-T^h, T'-T', T^h-T^h 는 금지하기 때문에 이질 구현 정도가 중간 정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반복 부사어가 자음의 자질 변화를 통한 강조변이형을 취하게 되면, 이질 구현을 요구하는 수준이 완화되어, 그 금지 연쇄는 줄어들게 된다. 이는 아마도 자질 변경을 통한 변이형인 경우 한 음절 발음시간이 길어짐으로서, 두 음절 동시에 발음할 때는 불가능했던 연쇄가 가능해지지 않은가 추측된다. 결론적으로, 제주어는 일반 반복부사어에서 변이형 부사어로의 자질변화는 경음화와 격음화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23) 성문 자질 변화를 통한 강조 변이형 유형

Type I: TVT.TVT. TVT.TVT => TVT.T'VT. TVC.T'VT.

ex. 달각달각 → 달각달각

6) 이런 현상은 영어에서도 엿보인다. 영어사를 살펴보면 모음 변화(중세및 근현세)가 자음 변화(원독일어 시대)보다 더 광범위하며 급격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고, 후대에 일어난 자질 변형을 나타내는 성절음화, 과찰음화는 비교적 변화가 적고 그 과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Type II: TVT.TVT. TVT.TVT => T^hVT.TVT. T^hVT.TVT.

ex. 구박구박 → 꾸박꾸박

Type III: TVT.TVT. TVT.TVT => T^hVT.TVT. T^hVT.TVT

ex. 빈직빈직 → 편직편직

반복 부사어 변이형은 두 음절로 구성된 어기 혹은 첩어 부분에서, 이질 성문 자질의 구현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반복 부사어에 OCP(obligatory contour principle) 원칙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OCP는 출력형에서 두 개의 동일한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Leben, 1973; Goldsmith, 1976; MaCarthy, 1986, 1994). Boersma (2000)는 기존의 발화상의 OCP를 비판하면서, 출력형을 이끄는 특정 인지 음향 신호를 선호하는 충실성 제약을 제시하였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OCP는 두 음향 신호의 최대 인지차이가 출력형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제주 반복 부사어의 변이형은 인지상의 OCP 제약을 따르고 있다고 보여준다.

제주어 반복 부사어 변이형이 성문 자질 분포상 갖는 특이한 사실은, 일반 중첩어에서 T^h-T', T^h-T, T-T^h, T'-T' 구성은 자체의 성문 자질을 변화하지는 않고, 모음이나 다른 자음으로의 변화를 통하여 변이형을 만든다는 점이다.

(24) 성문 자질 비 변화 유형 예

코짱코짱	코똥코똥
실각실각	슬각슬각
타들타들	타들락타들락
불착불착	불치락불치락

이는 T^h-T', T^h-T, T-T^h, T'-T' 연쇄가 이미 성문 자질 변경을 통한 최상의 의미상 강조형이기 때문에 성문 자질이외의 다른 자질 변화를 통

한 변이형을 만든다고 볼 수 있다.

4.2.2. 경음화

제주어의 경음화는 첫 번째 음절에 경음화가 오는 경우와 두 번째 음절에 오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강조 변이형 Type I 과 Type II). 어떤 경우이던지 어기나 첩어내의 한 음절의 두음 저해음에 [+tense] 자질이 덧붙여져서 경음화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음절에는 평음 저해음이 두음으로 위치한다. 첫 번째 음절의 경음화는 주로 첫째 음절이 모음(혹은 공명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발생하고 있다.

(25)

구들구들	꾸들꾸들
구박구박	꾸박꾸박
조글조글	쫘글쫘글
반질반질	뵤질뵤질

강조 중첩어에서 어두 경음화는, 2음절어 이상에서 첫째 음절이 [+son] 자질을 갖는 음을 끝으로 하는 음절에서는 어두 경음화를 갖는 제주어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음절의 경음화는 첫째 음절의 종성이 [+son] 자음으로 끝나거나(26),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이다(27).

(26)

살작살작	살 짹살 짹
등긋등긋	등긋뵤긋
폰뵤폰뵤	폰뵤뵤뵤
절뵤절뵤	절뵤뵤뵤
뵤뵤뵤뵤	뵤뵤뵤뵤

(27)

디각디각	디각뵤각
------	------

박작박작	박작박작
드근드근	드근드근
그닥그닥	그닥그닥

이 두 번째 음절의 경음화는, 제주어에서 보이는 저해음 중성 이후에 경음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예. 얼룩소 → 얼룩쏘). 강조 중첩어에서의 경음화는 [+son]다음에 경음화가 이루어진다. (26) 경음화는 /ㄹ/, /ㄹ/, /ㄴ/, /ㅇ/, 다음에 경음이 오는 경우이며, (27)은 모음 다음에 경음이 오는 경우이다. (26)인 경우는 서울어 동사의 비음다음에 (예. 감다 → 감따), 한자어에서 (발달 → 발따), 수식어에서 (감사다 → 감싸다)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하다. 그러나, 강조 중첩어에서 첫째 음절 중성이 [+son] 자질을 갖는 경우, 어떤 경우에 경음화가 첫 번째 음절에서 일어나는지, 혹은 두 번째 음절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차후로 미뤄둔다.

4.2.3. 격음화

일반적으로 제주 중첩어 강조 변이형에서 Type III 에 해당하는 격음화는 첫 번째 음절에서 발생한다.

(28)

부삭부삭	푸삭푸삭
빈직빈직	핀직핀직
즈근즈근	츠근츠근
잠방잠방	참방참방

제주어에서 나타나는 유기음화는 중세국어에서 합용병서로 쓰인 음소들이 한반도 중부 지역어에서는 경음으로 나타난 반면에 제주어에서는 유기음화로 구현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통시적인 측면에서 유기음은 신라이전으로부터 우리 국어에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경음은 15세기 이후에 출현하여 임진란이후로 더욱 우세하게 쓰였다 (고동호, 1996). 그

러나, 유기음화는 이러한 통시 음운론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조음 음성학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즉, 음향학적으로 제주어는 '구간길이'를 통한 대조보다는 '피치(음높이)'를 통한 대조를 더 선호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참고로, Kang (2008)의 연구에 의하면, 제주어에 나타나는 폐쇄음에서 여성 화자인 경우 격음 저해음의 F0는 275 Hz로 경음 저해음 242 Hz보다 높고, 평음 저해음 180 Hz보다는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간길이인 경우 평균적으로 경음은 221 ms, 격음은 160 ms, 평음 47 ms로 나타났다. 유기음은 경음과 비교하면 구간 길이는 짧지만, F0 수치는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기음화는 피치 높이를 강화하려는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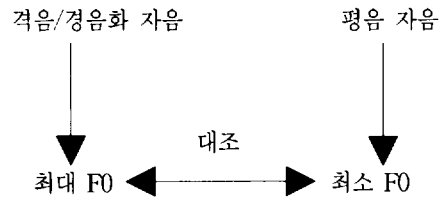
그러나 자질 교체형 반복 부사어에서 유기음화는 경음화보다 빈도수가 적게 나타나는데 (물론 서울어보다는 풍부하다), 이는 인지 측면과 더불어 발화상의 문법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h/를 어간 말음으로 갖는 중부지역어와는 달리, 제주지역어에서는 /h/가 유기음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모음부분의 구간이 길어진다는지, 혹은 기저형 자체에서 /h/가 없는 형태로 나타난다(예. 좋습니다 → 조쓰다, 땀다 → 땀다, 놓다 → 노다). 따라서 제주어 반복 부사어에서의 두 번째 음절 비 유기음화는, 제주어에서 나타나는 '/h/ 약화'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이는 청각 인지에서 출발한 변이형들이, 형성 과정에서 발화상의 제주어 고유의 문법에 간섭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2.4. 음운 현상

Silva(2006)는 서울 지역어에서 경음 저해음과 격음 저해음은 [stiff] 자질로 구현된 [H] 성조를 지닌다고 주장 하였다. 제주어인 경우도 경음 저해음과 격음 저해음은 동일한 [H] 자질을 지니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는 두 음의 기본 주파수가 각각 275 Hz, 242 Hz (여성인 경우)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음절과 두 번째 음절 사이의 OCP 원칙이 작용한다고 보면, 반복 부사어 변이형의 경음화와 격음화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

여 구현된다.

(29) 경음화/격음화를 통한 음운 대조의 강화



제주어 반복 부사 변이형에서 경음화와 격음화는 인지청각측면에서 [F0] 차이 극대화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F0]차이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음화와 격음화를 통하여 어기의 한 음절의 변화함으로서, 변하지 않는 나머지 음절과 최소 F0와 인지 청각적인 대조를 피하고 있다.

5. 결론

제주어에 나타나는 반복 부사어의 변이형을 음향 음성학의 신호를 바탕으로 발화와 인지측면에서 해석했다. 반복 부사어의 변이형들은 모음 변화, 자음 변화, 자질 변화를 갖는데, 이 변이형들은 인지 차이의 극대화를 피하고 있다. 이 인지 차이 극대화는 음성 신호차이를 이용하는데, 모음에서는 포먼트 차이, 자음에서는 음절 구간 차이와 피치 차이의 극대화를 이용한다. 이러한 인지상의 차이는 모음에서 전설모음화와 고모음화가 이루어지고, 자음 변이형에서는 두음 첨가, 말음 첨가, 부분 중첩, 자질 변이형에서는 격음화, 경음화의 음운 규칙이 적용된다. 즉, 인지상의 대조가 발화상의 음운 규칙을 유발하고 있으며, 제주어에 나타나는 반복 부사어 변이형은 이를 구현하는 좋은 예에 해당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제주어의 반복 부사어 변이형의 변화 경향을

설명할 뿐이다. 즉, 변화 형태를 설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만약에 인지 차이가 변이형을 유발시켰고, 그 인지 대조 최극점이 모음에서는 전설 고모음화, 자음에서는 어두 및 어말 첨가, 부분 중첩, 자질 교체형에서는 경음화 혹은 격음화가 일어나야 함에도, 최종적으로 이런 완전한 단계에 도달하는 변이형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반복 부사어 연구가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경향을 띄면서 일부의 발화상의 문법만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어말 첨가만 나타난다든지, 부분 중첩만 보이는 경우, 혹은 모음 상승화만 이루어지는 경우 등 여러 형태를 볼 수 있다. 제주 부사어의 변이형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모든 강화형(전설 고모음화, 어두 및 어말 첨가, 부분 중첩, 경음화, 격음화)이 한 어기내에 중복하여 구현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어떤 어휘는 모음 변화형만을 가지고 오고, 어떤 어휘는 자음 변화만을 가지고 오는지, 혹은 어떤 요인들이 그 선택에 개입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는 본 연구가 다른 측면에서도 시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참고로, 영어발달사에서 보이는 대모음 추이(Great vowel shift)도 모든 장-저모음(long low vowel)들이 장-고모음(long-high vowel)을 거쳐서 이중모음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상당히 많은 어휘가 중간에서 멈추든지 혹은 단모음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즉, 공시적인 변화가 적용되는 제주어의 반복 부사어인 경우, 어휘 형태론적으로 기존에 이미 비슷한 어휘가 존재하는 경우 변이형 생성이 저해되거나, 혹은 사회 언어학적 측면에서 언중이 사용하는 빈도수(frequency)⁷⁾도 변이형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이는 이 연구가 음성학, 인지 언어학, 형태론, 방언학, 사회언어학 등의 도움을 필요로 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차후 연구로 미룬다.

● 핵심어: 반복부사, 발화, 인지, 포먼트, 피치, 음절구간, 제주 방언

7) Albright (MIT)는 언중이 사용하는 빈도수는 언어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을 하였다. 제주어인 경우 빈도수를 측정할 만한 코퍼스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강공택. 1986. 「제주 방언의 반복 부사 구조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강석한. 2007. 『음성 음향 분석론(2판)』. 박학사. 역서. Kent & Read, Acoustic analysis of speech(2nd edition). Cambridge: Singular.
- 고동호. 1996. 「제주 방언의 유기음과 경음의 형성 과정」. 한글 234호. 163-189.
- 김광웅. 2001. 『제주지역어 음운론』. 제주: 제주대학교 출판부.
- 송상조. 2007. 『제주말 큰 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 연세대학교. 2006. 『연세한국어 사전』. 서울: 두산동아.
- Boersma, P. 2000. "The OCP in the perception grammar." University of Amsterdam. ms. (www.fon.hum.uva.nl/paul/papers/ocp_perc.pdf)
- Flemming, E. 1996. "Evidence for constraints on contrast: The dispersion theory of contrast." UCLA working papers in phonology. 1. 86-106.
- Flemming, E. 2005. "Speech perception and phonological contrast." In D. Pisoni and R. Remez (eds.). The Handbook of Speech Perception. Cambridge:Blackwell.
- Goldsmith, J. 1976. *Autosegmental phonology*. PhD Dissertation. MIT.
- Kang, S-H. 2008. "Non-morphological motivation in Cheju Korean emphatic reduplication." *Proceedings in ICKL 2008*.
- Leben, W. 1973. *Suprasegmental phonology*. Pd.D. Dissertation. MIT.
- MacCarthy, J. 1986. "OCP effects: gemination and antigemination." *Linguistic Inquiry*. 17. 207-63.
- MacCarthy, J. & Prince, E. 1995. "Faithfulness and reduplicative identity". In Beckman, Dickey, and Urbanczyk. 249-384.
- Silva, D. J. 2006. "Acoustic evidence for the emergence of tonal contrast in contemporary Korean". *Phonology* 23. 287-308.

<Abstract>

The role of production and perception in shaping the variations of reduplicative adverbs in Jeju Korean

Kang Seok-han

It is argued that the reduplication of Jeju Korean is a case of cooperation of universal grammar of perception and localized grammar of production. While the general shape of emphatic forms is made through maximizing the perceptual distance such as Maximize Distance of Formants, Maximize Distance of Duration, and Maximize Distance of F0, the specific arrangement of the perceptual principles is applied by phonotactic grammars which are realized as raising and fronting in vowels as well as tensification, aspiration, and onset or coda addition in consonants. This process of negotiation between two grammars is a motivation of the reduplicative adverbs.

- Key words: reduplication, Jeju Korean, perception, sound change, formant, pitch, duration.

* 이 논문은 2010년 7월 10일 투고되었고, 8월 1일 심사 완료되어 8월 9일에 게재 확정되었음.